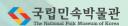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08 August 2012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Museum Auditorium 2012년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8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for August, Every Saturday 15:00, Museum Auditorium 2012년 8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757회

박혜윤의 가야금과의 대화 Conversations with Gayageum by PARK Hye-yoon **08.04**.



제758회

절대가인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Gugak Grand Field with the Absolute Beauty **08.11.**



제759회

김보연의 경기소리 감상회 Geonggi Sori Special Show by KIM Boyeon 08.18.



제760회

한여름의 젊은 춤판 Youthful Dance Field of a Midsummer Night 08.25.

* 공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박혜윤의 가야금과의 대화

Conversations with Gayageum by PARK Hye-yoon

2012. 8. 4. Sat (\varepsilon)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4 August 2012 (Sat),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이번 공연은 한국음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현악기중 하나인 가야금 연주를 선보인다. 가야금은 오동나무 공명반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12줄의 현악기로 손으로 뜯어서 소리 를 내며 그 음색이 청아하고 부드러워 대중적인 국악기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첫 공연은 민속기악 독주 중 하나로 음조가 다채롭고 빠른 음에서 경쾌하며 간결한 성금 련류 가야금산조를 선보인다. 이어서 상대방과 이야기 하듯 젊은 연주자가 관객들과 음 악으로 이야기하는 아흐'담담(談談)', 궁중무용 의 하나로 왼손과 오른손에 놋쇠로 만든 작은 타악기인 향발을 들고 치면서 절제미가 돋보이며 짜임새 있게 정돈된 향발무, 마지 막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작곡한 곡으로 우연히 만나게 된 비의 느낌을 표 현한 '遇(우)비'곡으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 공연순서 PROGRAM

- 1 성금련류 가야금산조 Gayageum Sanjo in SEONG Geumryeon kind
- 2 아흐'담담(談談)' Aheu 'Damdam'
- 3 향발무 Hyangbalmu
- 4 **遇(우)비** Woobi

PERFORMANCE DESCRIPTION

Gayaguems are very widely used in Korean music. It has 12 strings made of twisted silk on a sound board, and its sound is made by pitching the strings with fingers. The sound is clear and soft and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to make the gayageum a public-friendly gugak musical instrument.

The firstly presented is *Gayageum Sanjo in SEONG Geumryeon kind*, one of the folk instrumental solos. The tune is dynamic and speedy and played lightly and simply. In the next song *Aheu 'Damdam'*, the young performer converses with the audience through music, just like one talks with his/her partner. *Hyangbalmu* is one of the royal dance performances. The dancer holds two hyangbals (hyangbal: a small brazen percussion musical instrument) in each hand and dances in a very organized way. The last song *Hwoobi* expresses the feeling of the rain encountered unexpectedly.



대표 박혜윤 | 경기도립국악단 상임단원

출연 박정신, 이미주, 유가애, 이우진, 이한나, 김서경, 이서원, 전서윤, 김영숙

제757회 토요상설공연 The 757th Saturday Performances



■ 공연내용

이번 공연은 1부 전통음악과 2부 창작음악으로 다양한 형식의 국악공연을 선보인다. 1부에는 판소리 춘향가 중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흥과 멋으로 표현한 사랑가에 이어서 가야금 선율에 맞춰 노래하는 가야금병창(방아타령), 서울과 경기도지방 중심으로 불려진 민요로 흥겹고 명쾌한 경기민요(창부타령, 태평가, 양산도, 밀양아리랑)의 전통공연을 공연한다. 2부의 순서로 한국 전통국악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작된 노래를 선보일 것이다. 전라남도에서 널리 불려진 노동요를 피아노와 첼로의 반주로 재 창작한 둥당게타령, 판소리 춘향가중 사랑가 대목을 모티브로 삼아 남녀의 사랑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랑가, 여성 아카펠라의 편성으로 재 편곡하여 부르는 농부가,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각 파트의 독립성이 강하고 개인의 실력을 뽐내는 노래 풍구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 공연순서 PROGRAM

- 1부 전통음악 Part | Traditional Music
- 1 사랑가 Sarangga
- 2 방아타령 Bang-a Taryeong
- 3 창부타령, 태평가, 양산도, 밀양아리랑 Changbu Taryeong, Taepyeongga, Yangsando and Milyang Arirang
- 2부 창작음악 Part || Creative Music
- 4 등당게타령 Dungdangge Taryeong
- 5 사랑가 Sarangga

6 농부가 Nongbuga

7 풍구 Punggu

PERFORMANCE DESCRIPTION

In Part | , the firstly sung *Sarangga* narrates the love story between a man and a woman with an air of merriment and gorgeousness. Then, *Bang-a Taryeong* is sung with the gayageum simultaneously, and folk songs from Seoul and Gyeonggi regions such as *Changbu Taryeong*, *Taepyeongga, Yangsando and Milyang Arirang* are presented in the excess of mirth and pleasure.

Part || presents creative songs that are composed based upon Korean traditional gugak. *Dung-dangge Taryeong* re-created Jeonnam Labor Song with an accompaniment of the violin and the cello. *Sarangga* part in the Pansori Chunhyangga has been reinterpreted in a modern way to be played to the piano accompaniment. The next song *Nongbuga* has been arranged into female a capella, and the finale song *Punggu* will be sung by the parts each of which is strongly specialized according to an individual's talent.



대표 서정민 |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심청가 이수자

출연 정초롱, 유현지, 유성실, 이진솔, 이보람, 서경희, 이밝음. 안병화. 이고은. 김정훈. 이선옥

제758회 토요상설공연 The 758th Saturday Performances



■ 공연내용

이번 공연은 김보연의 경기소리 감상회라는 제목으로 한국 전통민요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경기12좌창 중 한곡으로 자연의 경치를 노래하며 다양한 음색으로 부르는 '유산가'를 선보인다. 이어서 만선을 기원하며 출항을 앞두고 헤어짐의 아쉬움과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배따라기, 이별가, 배치기' 세 가지 곡으로 엮어서 표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목각 관현악기로 구슬픈 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지는 이생강류 대금산조, 불교음 악중 하나로 인생과 효에 대하여 되돌아 볼 수 있는 '회심곡', 금강산의 경치를 노래로 표현한 '금강산타령'과 함경도 민요의 소박한 가사와 장단이 어우러진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강원도 민요의 애절함이 잘 표현된 '정선아리랑'과 경기민요의 흥이 돋보이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마지막으로 '장구춤과 어우러진 창부타령'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 공연순서 PROGRAM

- 1 유산가 Yoosan-ga
- 2 배따라기, 이별가, 배치기 Baettaragi, Ibyeolga (farewell song), Baechigi
- 3 이생강류 대금산조 Daegeum Sanjo in LEE Saenggang kind
- 4 회심곡 Hoeshimgok (repenting song)
- 5 금강산타령, 신고산타령, 궁초댕기 Geumgangsan Taryeong, Shingosan Taryeong, Gungchodaenggi
- 6 정선아리랑, 청춘가, 창부 타령 Jeongseon Arirang, Cheongchunga (youth song), Changbu Taryeong
- 7 장구춤과 어우러진 창부타령 Changbu Taryeong Intermingled with Janggo Dance

PERFORMANCE DESCRIPTION

In this performance, Korean folk songs are presented under the title of 'Geonggi Sori Special Show by KIM Boyeon'. The first song *Yoosan-ga* is one of the twelve Gyeonggi Chaired Sori to enchant the natural vista in various tunes. For the next, three songs in sequence, *Battaragi, Ibyeolga (farewell song) and Baechigi* are sung in wishes for the fertility and security as well as feeling sorry for being parted right before the start of the voyage. *Daegeum Sanjo in LEE Saenggang kind* is played in quiet and sorrowful tune by a representative wooden orchestra instrument in Korea, daeguem. *Hoeshimgok (repenting song)* is a song that prompts reflections on the life and the filial piety. *Geumgangsan Taryeong* depicts the scene of the Mount Diamond, and in *Shingosan Taryeong and Gungchodaenggi*, simple lyrics and rhythms of Hamgyeongdo folk songs are harmonized. *Jeongseon Arirang* expresses anxiousness melted in Gangwondo folk song, and the pleasing atmosphere is lighted in the melodies of *Cheongchunga (youth song)* and *Changbu Taryeong*. For the last, *Changbu Taryeong Intermingled with Janggo Dance* elaborates the finale of the stage.



대표 김보연 | 사)우리음악연구회 이사

출연 이성준, 강해림, 유은지, 유현지, 이관웅, 이정훈

제759회 토요상설공연 The 759th Saturday Performances





2012. 8. 25. Sat (\(\mathbb{S}\))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25 August 2012 (Sat), Museum Auditorium



이번 공연은 '춤하나댄스컴퍼니' 무용단의 한여름의 젊은 춤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무용 공연을 선보인다. 전통이라는 다소 무거운 장르를 현대적인 젊은 감각을 접목시켜 다양 한 레퍼토리로 구성하여 공연을 꾸며줄 것이다.

첫 무대는 단옷날 나들이 나온 아이들이 자연과 하나 되어 노니는 순수하고 서정적인 모습을 춤으로 표현하여 만든 단오풍경을 시작한다. 이어서 아박(牙拍)을 들고 추던 궁중무용을 토대로 창작한 아박무, 두 손에 검을 들고 무용수가 대형을 바꾸어 가며 등을 대거나 마주보며 추는 검무, 장구를 어깨에 둘러메고 음악에 맞춰 장구를 치며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는 장고춤, 진도지방의 농악놀이 중 북놀이를 재구성한 춤으로 강렬한 북 가락에 흥을 북돋아주는 진도북춤, 마지막으로 춤하나댄스컴퍼니 무용단이 전통무용 입춤을 재구성하여 만든 춤으로 즉흥성을 강조한 '연(腳)'으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 공연순서 PROGRAM

- 1 단오풍경 Dano Scenery
- 2 아박무 Abak Dance
- 3 검무 Geommu (Sword Dance)
- 4 장구춤 Jango Dance
- 5 진도북춤 Jindobuk Dance(Drum Dance)
- 6 **연(聯)** Yeon (聯)



PERFORMANCE DESCRIPTION

Under the title of 'Youthful Dance Field in Midsummer Night', Korean dance performances are presented by the group named 'Only Dance, Dance Company'. Modern sense is grafted to a traditional genre which can be a bit boring with a variety of repertories.

The first song *Dano Scenery* depicts a pastoral view of pure children who are out in the field on Dano day (the fifth day of the fifth lunar month) playing pleasantly with the nature. *Abak Dance* has been created based on the royal dance of which the performers used to hold abaks when dancing. In *Geommu (Sword Dance)*, dancers hold swords in their hands while rearranging their positions to see each other face to face or to stand back against the other dancers. *Jango Dance* dancers wear janggos across their shoulders and show dynamic dancing movements according to the rhythms. *Jindobuk Dance(Drum Dance)* escalates merriment through re-creation of drum plays in Jindo Nong-ak. Lastly, *Yeon (Ph.)* that was made through restructuring the traditional dance 'lpchum' to emphasize improvisational characteristics will finalize the whole program.



대표 윤영숙 | 춤하나댄스컴퍼니 대표 추여 가미아 기서여 기의 | 미체지 소여의

출연 강민아, 김선영, 김유나, 민혜진, 송영인, 오정은, 김영서, 노은빛, 임지예, 조한솔, 최주현

제60회 토요상설공연 The 760th Saturday Performances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 경복궁역 6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6분

6호선 :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6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유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0 홈페이지 http://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시간

3-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6-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